지난 2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에이스 페어(ACE Fair, 국제문화창의산업전)에 참가한 대기업 부스에서 학생들이 최첨단 3D 영상을 체험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亞대표 문화콘텐츠 시장으로 떠오른 광주 '에이스 페어'

빛고을 문화산업 성장 이끌 새 동력

문화콘텐츠·IT기술 최첨단 경연장…수출상담 액수만 2억3621만불 성과

에이스 페어(Asia Content &Entertainment Fair, 국제문화창의산업전)가 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거듭나고 있다. 문화의 범주 안에서 포함될 수 있는 방송, 영상, 게임, 캐릭터, 애니메이션, 에듀테인먼트, 라이선싱콘텐츠 등을 망라하며 이들 분야의 최첨단 기술과 문화콘텐츠를 동일 공간에서 유통·전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산업의 양축인 IT기술과 문화콘텐츠를 동시에 다루는, 에이스 페어의 특징이 국내외에 부각되면서 그 규모 역시 매년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2011 에이스 페어'가 남긴 것= 2006년 첫 개최 당시만 해도 어렵사리 지상파 방송사 3곳을 유치, 방송콘텐츠 관련 업체들의 성과물 전시에 그쳤었다.

하지만 6회째를 맞이하면서 후원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게임산업협회, 광주시교육청 등으로 늘었고, 그만큼 참여 기관 및 업체도 다양해졌다. 국내외 참가 바이어가 392명에 이르자 광주시와 김대중컨벤션센터 측은 대회기간 중 이틀은 일반 관람객 입장 없이 비즈니스 기간으로, 나머지 이틀은 일반인 관람 기간으로 분류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전체 참관객 수는 7만3000명으로 지난해 9만8123명에 비해 줄었다.

그러나 에이스 페어의 애초 취지인 '문화콘텐츠 유통시장'에 충실했다는 평가다. 지난해 삼성, 올해는 LG 등 대기업들도 '입질'하고 있으며, 3~5년 꾸준히 전시회에 참여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기업들도 생겨나고 있다.

올해의 특징은 IT 장비 분야의 최첨단 기술들이 선보였다는 점이다. 헝가리 홀로그래피카의 3D 홀로그램, 캐나다 스페셜뷰의 세계 유일 3D 모바일 스크린, 프랑스 알리오스코피의 무안경 3D TV 등 해외 업체의 신기술과 우리나라 현대아이티의 대화면 3D 디스플레이가 등장해 국내외 바이어와 참관객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콘텐츠 유통·융합의 장= 일대일 사전 점검을 통해 모인 국내외 바이어 392명이 이번 에이스 페어에서 수출상담한 액수는 2억3621만 달러, 건수는 921건에 달했다. 수도권에만 집중됐던 문화콘텐츠 유통시장을 지방인 광주에서 흡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또 에이스 페어에서 국내 기관 및 업체가 국외 기관 및 업체와 투자 또는 교류협력양해각서(MOU)를 속속 체결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국내 유명 3D 콘텐츠 제작사인 3D 엔터테인먼트사가 프랑스의 프로모(PROMO) TV 그룹과 3D 자연생태 다큐멘터리의 유럽시장 배급에 관한 500만 달러의 투자 MOU를, 광주 애니메이션 기업 팀 시드(Team Seed)는 싱가폴 팻치즈(Fatcheez)사와 투자 MOU를 각각 체결했다.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일본 영상산업진흥기구(VIPO)와 교류협력 MOU를 맺는 등 에이스 페어를 통한 비즈니스와 협력 부문의 성과가 두드러지고 있다.

해외 최고의 3D산업전문가들이 참석한 스마트콘텐츠 월드포럼, 방송통신융합의 새판짜기를 진단하는 디지털케이블 비전포럼, 콘텐츠산업 육성과 발전방안 세미나, 문화콘텐츠 전문가 특강 등도 에이스 페어에서만 가능한 프로그램이었다.

◇홍보·대회 운영 미숙 보완해야= 대회기간을 비즈니스 기간과 일반관람 기간으로 양분했지만 일부 업체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왜 이렇게 일반관람객이 없는 지 주최 측에 물어보니 비즈니스 기간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비즈니스 기간 동안 출입구를 통제하는 등 대회 운영이 조금 미숙했다"고 지적했다. 올해 참가한 LG 측은 "삼성이 참가하는 줄 알고 준비했는데 막상 와보니 불참해 맥이 풀렸다"며 "업계의 경쟁업체들이 참여했다면 전시회 분위기가 한층 긴장감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에이스 페어 사무국 관계자는 "계속 규모가 커가면서 보완해야 할 점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전시회가 꾸준히 확장되고 있고 성장가능성도 있는 만큼 부분적으로 분야를 나누는 방법도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사상 세번째 女性 대법관 나올까

■ 양승태 새 대법원장 대법관 인선 착수

목포출신 조경란·순천출신 박보영씨 물망

〈조경란 판사〉 〈박보영 변호사〉

양승태(63·사법연수원 2기) 신임 대법원장의 대법관 인선 작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후임 대법관에 누가 선임되느냐는 양 대법원장이 펼칠 향후 사법정책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2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대법원에 첫 출근을 해 공식 업무에 들어간 양 대법원장은 처음 처리할 주요 업무로 김지형(53·11기)·박시환(58·12기) 대법관의 후임 인선 작업에 돌입했다. 대법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양 대법원장은 27일 취임식 직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오는 11월20일로 6년 임기를 마치는 두 대법관의 잔여임기가 2개월도 채 남지 않아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대법관 인선에는 통상 2개월 정도 시일이 소요된다.

특히 김영란(55·10기·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 대법관, 전수안(59·8기) 대법관의 뒤를 이어 사법사상 세 번째 여성 대법관이 탄생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김 전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작년 8월 물러난 데 이어 전수안 대법관도 내년 7월로 임기가 끝나게 돼 여성 대법관의 맥이 끊길 수도 있는 상황이다.

두 대법관은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입장을 한결같이 대변함으로써 사법부 내에서는 물론 사회적으로 여성 대법관의 가치와 존재감을 깊숙이 각인시켰다.

대법관 시절 판결에서 보수적인 색채를 보였던 양 대법원장이 두 대법관의 후임을 누구로 제청하느냐에 따라, 대법원 내부의 이념적 성향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인적 구성은 최고법원의 상고심 판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양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의 구성을 보면 김지형 대법관(원광대)을 제외한 13명이 전원 서울대 출신인데다, 첫 학계 출신 대법관인 양창수(59·6기) 대법관과 검찰 출신인 안대희 대법관을 빼고는 모두 판사 출신으로 채워져 있다.

이 때문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입장을 대변할 수 있게 대법관의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양 대법원장도 이를 염두에 둔 듯 최근 사석에서는 "비서울대 후보를 찾기가 쉽지 않다"며 고민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의 전망에 따르면 현재 여성 대법관 후보로는 황덕남(54·13기·전북전주·서울대)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 박보영(50·16기·순천·한양대) 변호사, 윤영미(48·16기·대구·서울대) 고려대 법대교수 등이 물망에 오르며, 현직 법관 중에는 조경란(51·14기·목포·서울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거론된다.

/연합뉴스

정부 비상 경제대책회의 부활

MB "위기감 갖고 점검 운영"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는 급락하는 등 한국 금융시장이 공포 장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26일 세계 경제위기와 국내 물가 불안 등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제대책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관련기사 9면〉

이명박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전체적으로 위기감을 갖고 비상체제로 전환해 경제 상황을 점검해 운영하라"고 지시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내주부터 월2회 개최하던 국민경제대책회의를 1년여 만에 비상경제대책회의로 환원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09년 1월 사상 초유의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비상경제정부'를 선언한 뒤, 청와대 지하벙커로 불리는 상황실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다 지난해 9월 국민경제대책회의로 명칭을 변경한 바 있다.

다만 이번에는 지하벙커에서 회의를 열지 않고 논의 주제를 금융과 환율, 재정 상황 등에 집중키로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금 경제 상태를 볼 때 벼랑 끝에 있는 심정"이라면서 "그리스는 디폴트(채무 불이행)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면 유럽이 감당할지 아무도 모르고, 우리도 조심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초긴장 상태"라고 설명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쿼바디스??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 점망

서울 삼일로점(탑골공원 삼일로 입구):02)2276-0587~9 강남점(강남고속터미널 앞):02)3477-5110 종로2가점(금강제화 옆):02)733-0220 송파점(석촌역 2번 출구):02)419-3388 **경기** 인천점(구.시민회관 앞):032)421-2288 부평점(부평역앞):032)517-5110 수원점(남문 옆):031)246-5110 의정부점(포천로터리 흥국생명 앞):031)821-6655 안양점(벽산쇼핑2001 아울렛 앞):031)469-0110~1 평택점(평택역 앞):031)658-5110 용인점(용인네거리):031)336-1090 오산점(국민은행 2층):031)378-4183 부천점(롯데백화점 옆):032)329-4400 남양주점(평내호평역앞):070)8829-9903 **부산** 서면B점(서면로터리):051)818-8800 서면A점 818-0016 남포동점(부영극장 앞):051)256-7200 **울산** 울산점(공업탑로터리):052)268-2283 **경남** 마산점(마산역 앞):055)297-6060 진주점(중앙로터리 옆):055)745-9870 **대구** 동인점(동인네거리):053)425-4440 삼덕점(삼덕네거리):053)426-1511 남일동점(아카데미극장 옆):053)425-7575 **경북** 포항점(육거리):054)244-5110 안동점(구.안동농고네거리):054)859-2248 **광주** 광주점(구.도청 옆):062)225-5110 광주점(백운광장):062)651-4477 **전남** 순천점(중앙사거리 지하상가입구):061)752-8845 **전북** 전주점(진북로터리):063)252-5728 군산점(구.시청정문 옆):063)446-0198 익산점(북부시장네거리):063)838-5600 남원점(시장네거리):063)632-2626 **대전** 대전점(도청 앞):042)254-5110 대전점(중촌로터리):042)222-3388 대전점(대전역 앞):042)255-4900 **충남** 천안점(천안역 앞):041)553-2888 공주점(공주큰사거리):041)852-5110 **충북** 청주점(현.까르프 구.속리산고속 맞은편):043)222-1177~8 충주점(삼원로터리):043)852-1414 **강원** 강릉점(옥천오거리):033)647-0588 춘천점(팔호광장 앞):033)253-5110 **제주** 제주점(광양로터리):064)753-4358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허가 인증 / 국제품질 ISO 9001인증 / 국제의료기품질 ISO 13485인증 / 유럽공동체 CE마크 인증 / 의료용구 제조업체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538-9388

■광주 구)도청옆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광주 백운광장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651-4477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